



숨씨중은 이발사 아저씨의 1억원 당첨!

동대문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45, 서울 동대문구)씨. 생애 처음 1억원이라는 돈벼락을 뒤집어 썼다. 1등에 당첨된 날 이발소에 온 손님들은 모두 선물로 복권 5장씩을 받아 들고 가면서 연신 싱글벙글.

윤씨는 이발소를 10여년째 동대문에서만 하고 있다. 워낙 한 장소에서 오래하다보니 뜨내기 손님은 거의 없다. 그 동네 사람들과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단골만 받아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하도 손이 모자라 직원을 한 명 두었다가 손님들이 하도 윤씨만 찾아 다시 직원없이 혼자 해나가고 있다.

“손님들 머리 이발할때가 가장 신납니다.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나와도 가위를 손에 잡고 손님 머리를 이발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러니 이발은 저에게 천직입니다”.

윤씨가 자치복권 1억에 당첨된 것도 윤씨가 산 복권이 아니다. 사실 윤씨는 복권을 사러 일부러 나갈 시간도 없고 이발소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다시피하기 때문에 한가히 복권을 사러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터였다.

“그 복권은 제 단골손님 중의 한사람이 복권 판매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발하면서 두 장 가지라고 준 복권입니다. 그 분이 가고나서 끊었는데 1억 당첨복권이었습니다.”

윤씨는 그렇게 선물로 받아 당첨된 복권 상금을 혼자만 꿀꺽할 사람이 아니다. 당장에 복권을 준 단골손님한테 당첨사실을 연락했고 사례를 하겠다고 한 것. 그런데 그 손님을 거절을 했다. “윤씨가 운이 좋아서 당첨된 거지, 자신이 끊었으면 당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윤씨는 맘이 편하지 않아 당첨금의 일부를 봉투에 넣어 정중히 전해주었다.

“그 손님이 형편이 넉넉하면 신경을 안쓸텐데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윤씨가 당첨금을 받은 그날, 윤씨 이발소를 찾은 손님들은 머리도 자르고 잔치떡도 먹을 수 있었다.